다산포럼

강명관

성호와 다산의 수군(水軍) 걱정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이란 이름이 떠오르고, 또 이순신 하면 연전연승하던 조선의 수군이 생각난다. 아마도 당시 조선 수군은 한·중·일 세 나라에서 가장 강력했을 것이다. 한데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선은 청(淸)에 굴욕적인 항복을 했고, 청은 조선이 군비를 확충하는 것을 극력 꺼렸다. 이로 인해 군사력을 강화할 수가 없었다. 한편 조선 정부는 외교관계를 정상화하자는 도쿠가와 막부의 요청을 따라 일본에 다시 통신사를 보내기 시작하였다. 파란을 겪기는 했지만, 그로부터 조선후기의 장구한 평화가 시작되었다. 한때 강력했던 조선 수군의 행방은 어찌 되었던가?

섣부른 판단인지는 몰라도 이익(李瀷, 1681~1763)의 '성호사설'을 읽어보면 수군의 형편이 말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이익은 '수군'이란 글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나라는 땅은 넓지 않으나, 삼면이 바다라 둘레가 거의 5천 리가 된다. 따라서 바다의 방비가 가장 큰 걱정거리다." 외적이 바다로 침입해 오면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는 말이다. 수군이 강력했다면 이런 말이 나올 리 없다. 이익의 대책은 이렇다. 섬과 바닷가에 사는 어민에게 부과되는 무거운 세금을 면제시켜주고 관(官)에서 그들을 성가시게 하는 일이 없게 한다면, 어민들 가운데서 당장 몇천 명의 병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니, 그들을 수군으로 조련한다면 바다의 방어가 수월해질 것이다.

이익의 문제의식은 다산(茶山)에게 계승된다. 다산은 '전선책(戰船策)'이란 책문에서 수군 부흥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다. 다산은 전선이야말로 해적(海賊)을 막고 변방을 튼튼히 하며, 전쟁에 대비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수단이라고 서두를 꺼낸 뒤 이렇게 말한다.

대저 내지(內地)에서 적을 방어하는 것은 바깥 바다에서 막는 것만 못하고, 평지에서 군사를 부리는 것은, 사지에서 군사를 결속시키는 것만 못하다. 전선(戰船)은 나라를 지키는 이로운 도구다. 조수와 바람을 타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화포를 쏘고 돌을 날리며 치고 부닥치는 것을 편리한 대로 할 수 있다. 전선으로 돌격하면 가벼운 전차나 날랜 기병도 그만 못하고, 전선으로 포위하면 장사진이나 조익진(鳥翼陣)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나라는 전선의 제도란 방면에 있어서 아직도 황무지와 같은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소정방(蘇定方)이 바다를 건너왔을 때 백마강에는 한 조각의 배도 없었고, 원나라 세조(世祖)가 일본을 정벌했을 때는 만 척의 배가 일기도(一岐島)에서 깡그리 깨지고 말았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이니, 바다에서 오는 도적에 대비하는 방법이 다른 나라보다 갑절은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엉성하고 지리멸렬한 것이 예부터 이와 같으니, 어찌 뜻있는 선비들이 한스러워할 바가 아니겠는가?

다산은 수군의 한심한 형편에 대해 한탄하면서, 대비책을 묻는다. 중국의 수군 제도, 전투방법, 전선, 무기 등에 대해서 묻고, 조선의 경우에 대해서도 꼭 같이 묻는다. 이어 이순신이 한산도 대첩에서 쓴 진법, 신유(申瀏)가 나선정벌(羅禪征伐)에서 쓴 전법, 거북선의 유래, 전선(戰船)과 병선(兵船), 방선(防船)과 협선(挾船)의 명칭이 다른 이유 등을 묻는다. 다산의 생각은 아주 구체적이다.

예컨대 이런 질문도 있다. "조선의 전선이 크고 무겁게 만들면 왜선(倭船)을 제압하기란 쉬우나 움직이기가 어렵고, 가볍고 날래게 만들면 적선(賊船)을 추격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부서지기 쉽다. 그러니 어느 쪽이 나은가?" 이런 질문과 함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수군에 관련된 법이 일으킨 각종 폐단을 열거하고, 해결할 제도적 방책까지 묻고 있으니, 다산의 문제의식은 실로 주밀(綢密)했던 것이다.

수군에 대한 성호와 다산의 걱정은 두 사람의 걱정으로만 그치고 말았다. 그 말을 귀담아 들었다면, 미국과 프랑스의 군함은 아마도 강화도로 들어올 수 없었을 것이고, 마침내 식민지가 되는 비극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천안함 침몰이란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다. 침몰 이유를 비롯한 대부분의 의문은 아직 미궁 속에 있다. 옛날이야기로만 알았던 성호와 다산의 수군 걱정은 오늘도 계속되다니, 암담하기만 하다. 지금 무슨 말을 더할 수 있겠는가.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구조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랄 뿐이다.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민주 '진흙탕 경선' 유권자는 안중도 없는가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이 가관이다. 경선이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책대결보다는 후보 간에 조직 동원, 고소·고발, 인신공격 등 온갖 구태(舊態)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구시대적인 인물들이 앞으로 광주시정을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한심하다.

지난 4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합동연설회는 '정책대결의 장'이 아닌 '세(勢)대결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한다. 지지후보의 순서가 되면 일제히 이름을 연호하며 세를 과시했다가 연설이 끝나는 순간 썰물처럼 한꺼번에 자리를 뜨는 전형적인 구태를 드러냈다. 구태 재연은 지난 3일 밤의 방송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지역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대안 제시보다는 상대방의 과거 들추기 등 인신 공격성 발언이 쏟아져 지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뿐만 아니다. 각 후보 진영마다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상대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루머를 무차별적으로 퍼트리고 있다. 이런 보기에도 민망한 진흙탕 싸움을 보고 있노라면 이게 과연 제 1 야당의 경선이라 할 수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다. 아무리 정치가 현실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정치적 동지 관계인 같은 당 소속끼리 헐뜯고 비방을 일삼을 수 있는가. 무엇보다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이런 사람들에게 광주의 미래를 맡겨야 하는지 회의감마저 든다.

원칙도 일관성도 없고, 구태를 반복하는 경선은 민주당의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을 의심케 한다. 이 같은 민주당의 태도는 경선만 통과하면 무조건 당선이라는 오만에서 비롯됐다. 변화와 희망을 갈망하는 유권자나 지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민주당이나 경선 후보들은 지역의 밑바닥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 과거처럼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F1 대회 준비 소홀 '국제적 망신' 될라

개막을 200일 앞둔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교통난과 숙박시설 부족 등 갖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자칫 국제적 망신을 사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회기간 중 23만2천400여 명의 관람객에, 6만5천대의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건설중인 국도와 지방도가 오는 10월 중순까지 개통이 어려운데다 주차공간도 4만1천대에 불과해 교통문제가 최대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교통 분산을 위해 임시 개통을 추진중인 무안군 삼향면~영암군 삼호읍 동호리간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사실상 개통이 불가능하고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와 일로~임성간 국가지원 지방도로도 개통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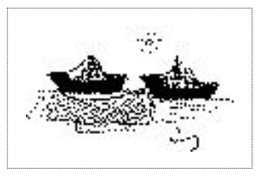
숙박문제도 발등의 불이다. 조직위는 선수와 운영진 등 대회 관계자들이 사용하는 객실을 19개소 3천600개로 정하고, 일반 관람객들의 이용 객실은 3만1천900여 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특급호텔과 일반호텔은 물론 모텔 등도 태부족해 외국 및 국내 관람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모텔까지 대회 관계자 숙박시설로 정해지면서 민박이나 여관 등을 이용해야 할 외국인들은 음식과 언어문제 등에서, 일반 관람객은 숙박난과 바가지 요금 등에 시달려야 할 형편이다.

F1 대회는 연간 관중 수 380만명에, TV 시청자 수가 23억명이나 되는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 행사다. 따라서 조직위는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도로의 개통을 앞당기고 여객선 등을 활용하는 해상운송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숙박난 해결을 위해 연수원 등 단체숙박시설을 늘리고 한옥민박과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체험시설 마련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교통난과 숙박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국제행사라면 성공 개최는 이미 물 건너 간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 추락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無等鼓

쌍끌이



침몰된 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위해 급기야 '쌍끌이 어선'까지 등장했다. 천안함 실종자 수색 작업이 더뎌지자 그물로 바다 밑바닥을 훑으며 어획하는 쌍끌이 기선 저인망이 가세한 것이다.

쌍끌이 어선은 두 척의 배가 한 틀의 대형 그물을 양쪽에서 당기며 조업한다. 일반적으로 저인망은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쌍끌이 어선이 저인망으로 바다 밑바닥을 휩쓸고 다니면 조그만 생명체까지 모두 올라와 바다 생태계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작용에도 쌍끌이를 동원한 것은 실종자나 유류품, 선체의 파편 하나라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실제로 쌍끌이 어선은 조업 중에 가끔 시신을 인양하는 경우가 있어 천안함 실종자나 유류품 인양에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천안함 실종자 수색을 위해 동원된 쌍끌이는 기대를 저버린 채 더 큰 불행을 불러왔다. 지난 2일 사고 해역에서 수색작업을 돕던 금양 98호가 인근 해역을 항해중이던 화물선과 충돌해 침몰하는 바람에 4일 현재 선원 2명이 사망하고 7명이 실종돼 국민은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렸다.

잇따른 불행에 천안함 실종자 가족들은 군에 구조 및 수색작업의 중단을 요청했다. 지난달 31일 천안함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군특수전여단(UDT) 소속 한주호 준위가 순직한 데 이어 민간인 피해까지 발생하자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며 구조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아직도 초계정 침몰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데다 수색 및 구조과정에서 잇따라 후진국형 사고가 터져 또 다른 비애감을 느끼고 있다.

천안함 수색과 승조원 구조를 위해 백령도 해상에 우리 해군의 최첨단 전력 상당 부분이 집결해 있는 터에 쌍끌이 어선의 출현과 침몰소식을 들어야 하는 국민은 착잡할 뿐이다.

/박치경 사회1부장 unipark@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김종호

예비군 동원훈련 통지서 e-메일로 받자

한동안 현대사회는 '정보화시대'라 일컬어져 왔지만 근래에는 더 이상 그 용어로는 현재의 모습을 담아내기에 부족할 정도로 정보화 패러다임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산업부분에서도 IT(정보기술)와 CT(통신기술)가 융·복합 되는 통합 ICT산업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등 정보·통신의 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여 병무청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교부하는 '전자송달 정책'을 등기우편 송달과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병력동원과 관련된 통지서는 2007년부터 전시 병력동원소집통지서의 e-메일 교부가 시작되었고 올해 하반기에는 평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e-메일은 과거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발송하던 방식에 비해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고객인 병역의무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무부과 내역이 전달되는 이점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우편료가 절감되는 예산절약의 효과 또한 거두고 있다.

이렇듯 효율적인 전자송달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고객인 병역의무자가 전자우편으로 통지서를 수령하겠다는 의사표시인 수신동의가 바로 그것이다.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 통지서는 징병검사 날짜라든가 입영날짜 선택 시 e-메일 수신동의가 접수되고 있어 송달체계가 안정화되어 있지만,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는 여건상 직접적인 접수기회가 없어 수신동의 인원을 늘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 실태를 보완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군부대와 협조하여 각종 예비군 훈련 시 직접 수신동의서를 접수하고, 병무청 및 대학 등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한 홍보에 주력하는 등 e-메일 수신동의자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으며, 동원통지서의 수신동의율과 통지서 e-메일 교부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병무청에서는 정책에 동참한 고객을 위한 감사 이벤트로서 경품 증정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또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도 매월 상품권 지급 등 자체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 지역 예비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

개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와 예비군 관련 정보제공에만 사용되므로 안심하고 수신동의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통지서를 e-메일로 받으려면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동원·예비군'분야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e-메일 수령신청'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수신동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62-230-4294)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예비군의 시기적 특성상 학업 또는 경제활동 때문에 주간 부재(不在)세대가 많아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반면, e-메일을 통한 전자수령은 고객의 입장에서도 훨씬 유용하리라 본다.

병무청에서는 통지서 전자송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고객이 보다 편하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기고

최홍규

사회복지와 K-water의 기여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크게 강조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고객은 기업을 사회의 기본적 생산주체로서 재화와 서비스 공급을 책임지는 '경제적 책임'과 사회의 법적 시스템 내에서 경제적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하였으나, 점차 법으로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기업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수준 이상으로 경영활동을 펼쳐야 하는 '윤리적 책임'으로 기업을 평가하게 되었고, 이제는 '자선적 책임'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자선적 책임'이란 기업이 반드시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 자발적 판단이나 선택에 따라 스스로 지는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회단체에 대한 기부, 청소년 선도를 위한 프로그램운영 및 단체 후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제 프로그램 및 지원 등의 활동 등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발전과 복잡다난한 사회로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 가리워져 우리 사회에는 그늘진 곳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로 인해 행복지수는 경제지수와 역행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즈음에 최상의 물 서비스 기업인 K-water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가장 궁극적이면서 최상의 책임이라 할 수 있는 '기업의 자선적 책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공헌을 위한 투자비는 공사 매출의 3% 수준을 넘어섰는데 이는 국내 상장사 평균 사회공헌 비중보다 15배나 많은 규모이며, 사회공헌 분야와 종류가 그 어느 기업보다 다양하고 수혜계층의 폭도 넓다.

K-water는 농촌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해 2006년 합천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15개소에 효나눔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함으로써, 댐 주변지역 어르신들의 복지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4월 6일, 공사에서 여섯 번째로 개관하는 주암댐효나눔복지센터는 순천시 승주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758평에 연면적 269평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에 작업치료실, 주간 보호실, 문화교실, 무료급식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인근 승주읍 보건소 및 게이트볼장과 연계하여 집중적이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피톤치트가 많이 함유되어 상큼한 나무향이 일품인 삼나무와 몸에 좋은 원적외선이 다량으로 방출되는 옥돌로 마감된 친환경 찜질방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도움되리라 기대된다.

아울러 주암댐 효나눔복지센터는 노인들의 편의시설 이용에 장애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 7월부터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정·시행중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국내 최초로 받았으며, 본인증을 앞두고 있어 어르신들이 시설을 매우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복지는 '나눔'에서 시작된다. K-water는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사회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작은 나눔이 계속 이어져 지역사회에 조금씩 확산되어 갈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며, 이것이 우리 기업이 추구해야할 진정한 사회적 책임이라 믿는다. 〈K-water 전남지역본부장〉

경찰대생 국비로 司試 준비… 의무 근무 기간 늘려야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 경찰대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사법고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했다. 경찰대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므로 등록금이 무료이고 학생들에게 기숙사는 물론 책값과 품위 유지비까지 제공된다. 그런데 그 안에서 별도로 사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른 후 개인적인 법조계의 길로 가버린다면 이건 개인의 일생에 국가가 뒷돈 대준 꼴 밖에 안 된다.

국민의 혈세로 경찰대학을 마친 사람은 적어도 졸업 후 최소한 10년 이상은 경찰에서 근무토록 규정을 지어야 한다(현재는 군복무 포함 6년). 그리고 그 안에 사시 등을 통해 경찰복을 벗을 경우 그동안 들어간 경찰대학 내의 학비 전액을 반환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기훈·광주시 북구 오치동

'감정노동' 종사자 심리상담 등 건강관리 필요

우리 주변에 전화상담을 하는 텔레마케터나 상담원을 일컬어 감정 노동자라고 하는데 이 감정노동자들의 근무환경과 열악한 조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감정노동은 자칫 정신과적 문제를 불러 우울증과 탈진을 일으키고 자살을 한 노동자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므로 이에 따라 예방조치, 사후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악성 고객에게 패널티를 주는 방안과, 감정노동에 대한 기준을 노동법상 마련하는 방안, 또 기업 내부에 접객권리장전 같은 것을 제작해 비치하는 식으로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며 정기적으로는 심리상담과 의료조치를 함께 시행하는 게 옳다고 본다.

▲이 솔·목포시 영해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